

# 우호관계 지속적 발전을 확신

## 「하와이」 주지사 주최 만찬 만찬사

1981년 2월 5일

「아리요시」 지사, 「피터스」 의장, 「롱」 제독, 「앤더슨」 시장,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우선 본인은 오늘 저녁 본인 내외를 훌륭한 만찬에 초대하여 주시고 본인과 한국을 위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인과 수행원을 위해 따뜻한 영접과 극진한 예우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쯤은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지상낙원임에 틀림없습니다.

본인은 오늘 낭만과 꿈이 서려 있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한·미 양국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양국간의 이해의 바탕을 넓혀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기후 좋고,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이 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우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섬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태평양사령부가 위치하는 군사상의 요충이라는 실질적인 이해를 떠나, 이 섬은 우리 나라가 가장 어렵고 어두웠던 시기인 20세기 초엽에 우리의 이민 1세대들이 이곳에 건너왔던 첫 미국땅이며, 또한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본거지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하와이」는 동서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한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수학하였으며, 이들은 귀국하여 조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동서문화센터가 동양과 서양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양문화권의 차이점을 융화 발전시킴으로써 인류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는 태평양연안국회의가 이 지역국가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구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호놀룰루」는 1973년 우리 나라의 수도인 서울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아리요시」 주지사의 건승과 「하와이」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한·미 양국민의 우의를 위하여 축배를 듭시다.